

“외로운 사람들 다양한 로맨스 그리고 싶었다”

영화 ‘좋아해줘’



유아인·최지우 주연 영화 ‘좋아해줘’ 광주출신 박현진 감독 인터뷰



세 쌍의 커플이 있다. 잘 나가는 작가와 더 잘 나가는 한류 스타, 집주인과 세입자로 만난 노총각과 노처녀, 연애 초짜 작곡가와 밀당 교수 PD. 이들이 만 들어가는 사랑 이야기가 관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 ‘좋아해줘’다.

지난 17일 개봉한 ‘좋아해줘’는 오랜만에 등장한 로맨틱 코미디물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데드풀’과 ‘검사의전’ 등 흥행작 틈바구니 속에서 22일까지 52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선전하고 있다.

‘좋아해줘’의 메가폰을 잡은 이는 광주 출신 박현진(38) 감독이다. 문화여중, 광주여고를 거쳐 한국 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한 박 감독을 전화 인터뷰했다.

‘좋아해줘’는 박 감독의 두번째 장편영화다. 총무로 임성작은 지난 2007년 윤계상·김하늘이 주연을 맡았던 ‘6년째 연애중’으로 역시 로맨틱 코미디물이었다. 두 작품 모두 작품 각색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원래 로맨틱 장르를 좋아하기도 하고, 첫 데뷔작이 로맨틱 코미디여서 인지 이 쪽 장르로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다른 장르에도 관심이 많습 니다(웃음).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언제부터든 흥행에서 고전하는 편인데, 첫 주 성적이 조금 아쉬기도 하지만 장기 상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아해줘’의 주인공을 엮어주는 건 SNS로 작품 속에서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저희 작품이 SNS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그계 전부는 아니에요. 다양한 연령대의 로맨스를 그리고 싶었어요. 결국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입 니다. 작품 속 주인공은 상대방을 사랑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한 다른 사람의 연애를 도와주는 상황 에 빠지기도 하는 등 다양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좋아해줘’는 화려한 캐스팅으로도 화제를 모았 다. 유아인·이미연·최지우·김주혁 등 내로라하는 스타들과 강하늘·김슬 등 신예 배우들까지 짝한 캐 스팅이다.

“영화 캐스팅은 지난한 기다림의 과정이에요. 배 우들이 결정을 해줘야 진행이 되니까요. 캐스팅과 관련해서는 제작사 대표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웃음) 가장 먼저 강하늘씨에게 시나리오가 왔는데 일주일만에 오케이 사인이 왔어요. 그 이후에 캐스 팅이 오며 결정했죠. 캐릭터에 맞는 좋은 배우들이 캐



박현진 감독이 연출한 웹드라마 ‘출출한 여자’

스팅돼 즐겁게 찍었습니다.”

박 감독은 지금은 대세가 된 웹드라마에도 일찍이 진출했다.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출출한 여자’ 시즌 1과 ‘출출한 여자’에 참여했다. 10분 분량의 짧은 드라마지만 공감가는 스토리로 많은 이 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30대 싱글녀의 먹방 무비’를 표방한, 박희본 주연 의 ‘출출한 여자’ 중 ‘우정의 맛’과 ‘홍콩의 맛’ 에피 소드의 대본을 쓰고 연출을 맡았다. ‘출출한 여자’는 ‘한공주’로 지난해 영화계를 휩쓴 천우희가 주연한 작품이다.

“윤성호 감독 등과 함께 만든 작품인데 반응이 좋 았어요. 박희본, 천우희 같은 좋은 배우를 만난 것도 즐거웠구요. 웹드라마는 상업 영화에 비해 아무래도 부담이 없고 사람들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 어 좋아요. 영화는 제작 과정이 길다 보니 관심을 가 졌던 이슈나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반감되 는 경우가 있는데 웹드라마는 바로 찍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관심가는 이야기들을 연기 잘하는 배우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박감독은 또 다른 웹드라마와 새로운 장편 영화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늘 ‘문화가 있는 날’…봄맞이 문화행사 풍성

통기타 그룹 ‘필로스’ ‘프로로그’ 등 공연 집콘 ‘남자들의 집들이 요리’ 네이버 중계

오늘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이다. 겨울 끝자락을 붙잡고 봄을 맞이하는 각종 문화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은 24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통기타 동호회 ‘필로스’를 초청해 ‘아직 못 다한 이야기, 끝내 이룰 꿈’ 공연을 연다. 보컬·기타그룹 ‘백만볼트’(홍복희·유인태·김창호), ‘여울목’(박창수·임용순), ‘섹쉬봉’(박창수·김상복·민병덕·임종호), 클래식 기타 김재광 등이 함께한다. 전석 무료. 문의 062-670-7945.

광주시립미술관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미술관 본관 제6전시실에서 오후 2시부터 ‘작품해설과 국악이 있는 미술관’을 진행한다. 임종영 학예연구사의 전시작품 설명과 함께 광주시립국극단 단원이 국악공연을 선보인다.

제1전시실에서는 오후 6시30분부터 ‘미술사와 영화가 있는 미술관’이 열린다. ‘까미유 끌로델’(150분)의 전기영화가 상영되며 윤익 학예연구1과장이 나서 로댕과 끌로델의 작품을 설명하고 당시 프랑스 문화 등을 소개한다. 상록전시관에서는 오후 5시부터 ‘큐레이터의 작품설명회’가 개최된다. 문의 062-613-7143.

유·스퀘어가 준비한 ‘아름다운 유·스퀘어

음악회’에는 지역 통기타 그룹 ‘프로로그’가 출연한다. 오후 6시부터 유스토리(영풍문고 앞 실내공간)에서 ‘나는 나비’, ‘붉은 노을’, ‘걱정 말아요 그대’, ‘아름다운 강산’ 등을 들려준다. 문의 062-360-843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을 하고 문화창조원 전시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아시아와 근대, 비껴서다’, ‘플라스틱 신화들’, ‘이곳, 저곳, 모든 곳 : 유라시아의 도시’ 등이 열리고 있다. 문의 1899-5566.

광주박물관에서는 은화수 학예연구실장이 오후 5시부터 ‘인류는 왜 농경을 시작하였을까?’를 주제로 ‘토크 뮤지엄’을 진행한다. 문의 062-570-7000.

그밖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지역 12개 영화관에서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상영되는 영화를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3D상영관, 특수관 제외.

이번 달 ‘집콘(집들이콘서트)’은 최신 트렌드에 맞춰 주제를 ‘남자들의 집들이 요리’로 잡았다. 케이블TV 올리브쇼 ‘셰프들의 레시피 게임’ 3MC 성시경(가수), 박준우(푸드칼럼니스트), 조세호(개그맨)가 출연한다.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네이버TV캐스트를 통해 생중계되며 모바일과 웹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그림 그리는 공무원’ 정동 작가 개인전

27일~3월 4일

고흥 남포미술관



‘능정해변’

‘그림 그리는 공무원’ 서양화가 정동 작가가 고흥 남포미술관에서 ‘마음으로 그린 풍경’을 주제로 27일부터 3월4일까지 개인전을 연다.

1977년 고흥군청에 임용해 현재 환경산림과장에 재직 중인 정 작가는 평생을 고흥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공직에 종사하면서도 꾸준한 창작 활동을 해 공무원 미술대전 등 각종 공모전에서 입상한 이력이 있다.

이번 전시에서 정씨는 ‘능정 해변’, ‘팔영산 설경’ 등 고흥 고흥의 아름다운 풍경을 서정적인 색채로 담아낸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작품 ‘능정 해변’은 푸른 하늘 아래 바닷가에 가지런히 정박한 고깃배를 그렸다. 한적한 해안 마을, 해변 앞 무인도 등 여느 남도 시골 풍경을 화폭에 담은 이 작품은 관람객들에게 고흥을 떠올리게 한다. ‘매밀꽃 핀 팔영산’은 싱그러움 느낌이다. 초록, 노랑이 어루러진 매밀꽃 뒤로 푸른 산이 겹쳐 보이고 그 위로 푸른 하늘이 펼쳐졌다.

정씨는 호남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전라남도 미술대전 추천작가와 순천 일요화가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1-832-0003. /김용희기자 kimyh@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